

책 향기 솔솔~

문화향연 선물한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

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개최되었다. '길림에서 만나 책의 향기를 함께 누리자 (相约吉地 共沐书香)'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 전국 각지의 600 여개 출판발행단위에서 40 여만종의 출판물을 전시해 독자들에게 정채로운 문화향연을 선물했다.

/ 류향휘기자



▲ 한 아이가 3D 도서를 감상하고 있다.



▲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추천하고 있다.

▼ 전통 답화 (踏画) 를 체험하고 있는 꼬마독자.



▲ 전통 인쇄술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



▼ 흑룡강출판미디어문화사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추천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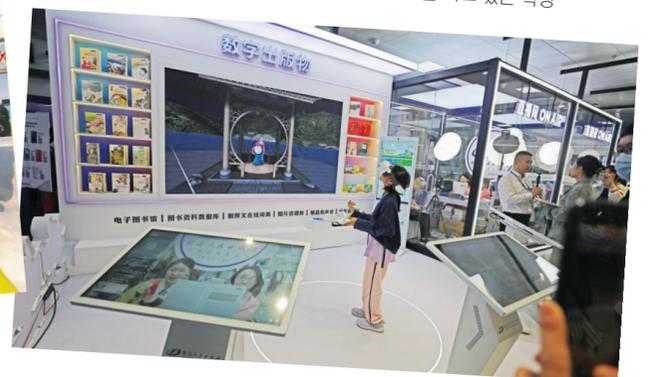
▼ 디지털 출판물 전시구역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



▲ 사화량 (谢华良) 작가로부터 사인받고 있는 꼬마팬



▲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역



▲ 정품 도서에 목 빠진 로인 독자



▲ <장백산> 화첩을 감상하고 있는 독자들